

병아리 생산량의 증가와 경기침체로 봄철 소비시장 더 압박받을 듯...



김 동 재

(본회 이천육계분회장/송정농장 대표)

최 근 마스크에서 들려오는 시끄럽기만한 정치가들의 이야기나 온통 오염 투성이인 대지를 보면서 새 하이얀 함박눈이 온 누리를 덮을 당시만 해도 잠시나마 깨끗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것도 잠시... 폭설로 변한 날씨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 육계 계사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참으로 처절한 현장이었다.

피해를 많이 본 양계가족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

필자는 육계로 양계를 시작하였고, 육계를 하기 위하여 종계장과 부화장을 겸하고 있다. 30여년을 종사한 양계업계의 안타까움을 작

은 일부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히 몇자 적어본다.

포유동물이 한 마리 새끼를 생산할 때 많은 진통 속에 번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닭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을 낳는 줄 알고 있지만 닭도 진통 속에 알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닭고기는 서민의 애환이 실린 1교 3저(고단 백질, 저지방, 저칼로리, 저 콜레스테롤)의 훌륭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정책적으로 대체식량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닭고기 소비량을 보면 1인당 30kg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볼때 소비량이 1인당 6kg정도에 지나지 않는 우리 나라 소비시장은 많은 증가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일부 계열 업체들은 농가의 선도적인 입장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적용하는 등 계열농가들에게 오히려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계열 업체의 생산원가 계정은 인건비에 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사이에는 서로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상대평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곧바로 계열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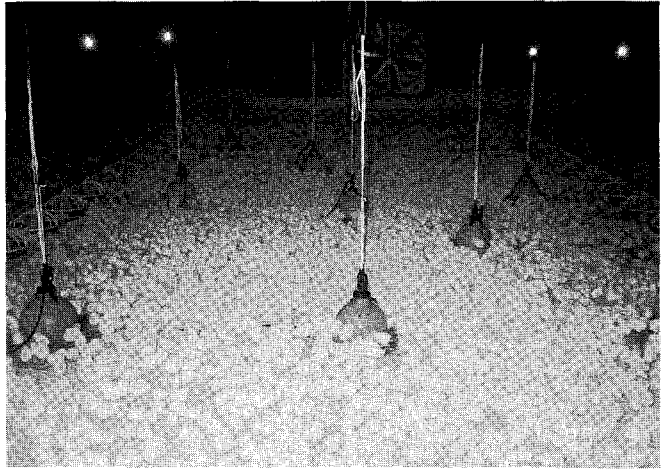
가의 노동 착취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계열 업체의 시장장악으로 인하여 일반사육업자는 설 곳을 잃어버렸고 계약 사육과 일반사육을 오가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계열업체와 계약사육업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표준 사육계약서가 완성되어 이에 따른 풍토조성이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몇 년전 양돈인 모임에서 수입고기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신선육(생고기)을 판매하여 우리의 입맛을 고급화 시켜야 한다고 결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확실히 돈육소비촉진에 많은 촉매역할을 해주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의 닭고기는 냉동고기로 인해 맛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온것이 사실이다. 제일 우려되는 것은 전량 수입고기에 의존하는 패스트푸드 식품과 닭갈비에 맛 들여지는 어린이들에 있다. 닭고기를 공급하는 상인과 각 계열 업체는 냉동육이 아닌 신선육을 유통시켜 소비자의 입맛을 고급화시키고 다양한 상품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금년 1월 수입될 닭고기의 물량만 해도 지난해 보다 훨씬 높은 7천여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제부터라도 수입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에 온 양계인이 한 마음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돈육 파동에 따른 노계 체화로 인하여 많은 노계가 환우에 들어가는 바람에 병아리 생산량이 늘어 경기침체로 가라앉은 봄철 소비시장이 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부화장과 실용계 농장들간의 불신



관계도 빨리 해소되어야 할 당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럴때 일 수록 서로 만나 자주 대화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모든 양계업체가 대형화되고 종계장도 자동화 시설로 규모가 커지면서 종계장 종사자들이 점점 더 편안함을 택하여 종란 관리의 부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오염된 종란은 난계대 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용계 농장에 피해를 입힐 소지를 안고 있다.

몇 년 전 만해도 케이지 사육을 많이 했었을 때와 평사 사육을 더 많이 할 때와의 비교를 통해 병아리 질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 사육방식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종란을 관리하는데 있었다. 바로 이것이 닭 한 마리의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ND 퇴치를 외치면서 모 신문 광고에 종계인 전체의 이름으로 ND 살처분 보상 문제에 관하여 게재 된 광고를 본적이 있다. 그러면 서도 관급 백신이 예산관계로 2000년 하반기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그것을 핑계로 각 부

화장은 백신접종을 기피해왔다. 하반기 고가의 병아리를 분양하면서 백신정도의 서비스는 가능했을 것이다.

병아리 BOX에는 '양심과 정성을 병아리와 함께 곁게 포장하여 농가에 분양합시다'라는 상표가 붙어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량 병아리를 공급받을 농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부화장은 우량병아리 공급과 정확한 정보와 사육지도를 할 때 불신은 해소 될 것이다. 환기보다는 열 관리를 우선해야하는 영세성 농장시설들은 겨울철 방역은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질병 전염의 매개체이면서 방역에는 속 빠져버린 사료업계를 비판 안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독조 시설, 사료의 계량전표마다 소독 완비라고 표어는 다 찍혀있다. 질병 발생지역의

가축은 사료를 먹지도 안는단 말인가? 사료회사 별로 스팀 세차시설이라도 설치하여 완벽한 소독차량(운송기사)으로 인하여 질병전염을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비싼 수입곡물이 노적되어 부패되고 썩은 사료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면서도 질병을 방지한다는 사료를 만들었다고 광고하여 농가를 기만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할 줄 안다. 수입 곡물이 노적되지 않도록 안전한 창고 속에 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사료가격 인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사료의 질에도 문제가 없게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사랑도 생명체가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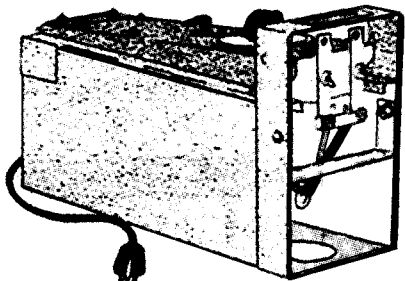
우리 업계 모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때 축산 업계 모두가 어려운 이때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계**

보령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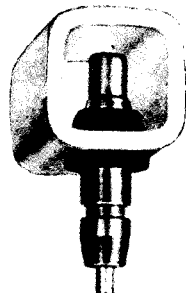
◎고품질 ◎저렴한 가격 ◎국산품 입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납 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⁰개발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27
신 화 : (02)461-7887 (주·야)